



표지이야기

송필용 작, 역사, 194x130.3cm, oil on canva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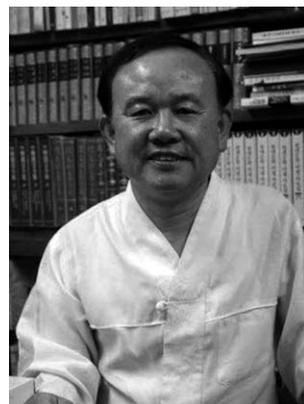
전남대,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학교재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광주시립미술관 등 개인전 22회, 2017년 서울 학교재갤러리 <미항사>, 2015년 안산 경기도미술관 <경기 팔경과 구곡>.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청와대, 겸재정선미술관.

	여는 시	
	산밭 녹두싹을 키우며	노창수
2	‘창’을 열며	
	‘말모이’와 민족정신 지키기	백수인
3	특집기획_ 당신과 나, ‘광주다움’을 묻자	
	획일화된 다양성으로부터 광주다움을 설계하자!	김현영
	광주다움에 대하여	전고필
	광주다운 경제의 시작, ‘경제 민주화’	윤영선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다움	노성태
	‘인권’ 도시 광주, 누구의 인권 도시인지를 묻다	미리내
	터무니가 오롯하게 살아서, 모두 다 행복한 도시	김경일
	도시, 건축에서 광주다움	이효원
18	문화인 탐구생활	
	‘원림과 불탑’ 다시 ‘서역’	천득염·김정희
23	기획연재	
	겨울이어서 더욱 홀로 지키며 푸르른 누정 ‘독수정’	임준성
26	문화진단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어떻게 되고 있나	홍성철
28	문화현장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박시영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며	윤수안
	독서는 구도(求道)인가	김정희
34	문화청년그룹	
	열려있는 시민 문화활동 플랫폼, 청년문화허브의 시작	정두용
36	문화특특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문화·관광의 연계 방안	안태기
	지금 청년들이 문화를 배운다는 것	조오윤
	‘사(死)의 찬미’와 김우진	김세곤
43	재단소식·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말모이’와 민족정신 지키기



백수인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근 <말모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말모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면서 이름붙인 것이다. 즉 말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이 영화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말엽 194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문맹인 김판수(유해진 분)가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을 만나 ‘말모이(사전)’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했다.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면서 황국신민화 정책, 창씨개명 등을 강행하면서 우리말과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어와 일본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영화 속의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갖은 수난을 겪으면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말모이’를 편찬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노력은 해방 후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기초가 되었다.

일본은 왜 ‘황국신민화’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우리말 사용 금지를 택했을까? 영화 속 대사를 빌려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깎그리 말살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없애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1945년 광복이 없었거나 더 늦었더라면 우리말과 한글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말과 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우리말을 되찾고 보니 많은 우리말이 일본어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를 되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염된 일본어를 어느 정도 씻어내고 나

니, 이제는 다른 외국어가 더욱 심하게 우리말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어를 비롯한 서양 말들이다. 특히 골프장, 아파트, 예식장들의 상호는 대부분 우리말이 아닌 서양말로 되어 있다. 그 실례를 두서없이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필드’, ‘블랙스톤’, ‘아난티’, ‘씨닝포인트’, ‘파인비치’, ‘스카이힐’ 등은 골프장 이름이다. ‘브라운스톤 레전드’, ‘골드클래스’, ‘더힐’, ‘라테라스’, ‘이니그마빌’, ‘아이파크’, ‘아펠바움’ 등은 아파트 이름이다. ‘웨딩그룹위더스’, ‘라페스타웨딩홀’, ‘드메르웨딩홀’, ‘데일리웨딩컨벤션’, ‘리츠켄벤션웨딩홀’, ‘그랑시아웨딩컨벤션’, ‘까사디루체’ 등은 예식장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가게의 이름과 각종 물건의 상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대화나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외국어 단어들 들어 있는가.

“테이크아웃하실 건가요?”, “손님, 트레이 가져가시고 스트로우는 왼쪽에 있습니다.”, “웨이팅은 30분 이내입니다.”, “캐셔 구합니다.”, “굿 초이스입니다.”, “그 타임을 터닝포인트로 삼았네요.”, “아이쇼핑만 해도 굿이죠.”, “팩트체크를 해봐야죠?” 이것들이 오늘날의 한국어 대화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서양말로 표현해야 더 고급스럽고,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해야 고상하고 품위 있고 세련되게 보이기 때문인가. 우리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문화를 막연히 동경하고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서양의 문화식민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말이 민족정신이라면 우리의 정신은 이미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온갖 사유와 문화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

당신과 나, '광주다움'을 묻자

이번 호의 특집기획 주제는 '광주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는가?' 입니다. 최근 들어 광주시의 공공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광주다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 지하철 2호선 디자인, 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 관문 톨게이트, 총괄건축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다움'이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주다움이 무엇이고, 광주다움의 실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각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분권, 문화예술관광, 경제노동, 역사 사회, 인권, 생태환경, 도시디자인·도심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다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기능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편집자 주

획일화된 다양성으로부터 광주다움을 설계하자!

김현영_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상임이사

광주다움에 대하여

전고필_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 맛기행 권역 PM

광주다운 경제의 시작, '경제 민주화'

윤영선_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다움

노성태_ 광주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인권' 도시 광주, 누구의 인권 도시인지를 묻다

미리내_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터무늬가 오롯하게 살아서, 모두 다 행복한 도시

김경일_ 사단법인 푸른길 이사장

도시, 건축에서 광주다움 - 걷기 좋은 도시이면 어떨까?

이효원_ 전남대학교 교수

특집기획_ 당신과 나, '광주다움'을 묻자

획일화된 다양성으로부터 광주다움을 설계하자!



김현영_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광주다운 자치분권의 심장은 다양성이다.

'광주정신'으로 대변되는 광주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자부심으로, 어떤 이들에게 부채의식으로, 어떤 이들에게 그들만의 공화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80년 5월로 대변되는 광주에 대한 기억은 저항과 공동체로 각인되어 있지만, 광주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 기반한 공통 분모로 승화된 민주주의이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광주는 늘 새롭다. 다만 그 새로움을 자신의 생명력으로 인지하고, 그 생명력을 꽃피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100년이 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이익 창출을 위해 점점 거대화되고, 거대화된 자신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도시의 힘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의 창출이다.

지방 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문제의 핵심은 획일화된 방식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직체제로 이어지는 개성없는 도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다. 각 도시의 특색과 그 특색이 섞이는 과정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출구 전략은 다양성의 회복이다. 다양성 회복의 모티브는 권력과 자본의 분점, 그리고 이를 통한 자치역량의 구축이다.

광주다운 자치분권 실현의 무기는 광주정신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힘이다.

상명하복의 획일성을 강요했던 80년 군사독재시절 광주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군사정권의 획일화된 대한민국에서 광주는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었고, 천편일률적인 줄세우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민주주의는 곧 다양성이다. 그 다양성의 힘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작점은 자치와 권력의 분점이다.

광주다운 자치분권 실현의 힘은 자치역량, 협치력이다.

오늘의 도시문제는 특정한 힘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이해와 요구가 뒤섞여져

지방 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문제의 핵심은 획일화된 방식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직체제로 이어지는 개성없는 도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다. 각 도시의 특색과 그 특색이 섞이는 과정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출구 전략은 다양성의 회복이다. 다양성 회복의 모티브는 권력과 자본의 분점, 그리고 이를 통한 자치역량의 구축이다.

있는 도시문제의 해결점은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그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치 역량이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 역량을 도시 공동체 안에서 에너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행정, 시민사회, 지역 정치,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협치력이다.

광주다운 자치분권 실현의 힘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민주 역량이다.

광주는 이미 2000년 초반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제를 만들고,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테이블을 구축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행정과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온, 그 다양한 경험은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었다. 이제 행정의 상층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마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체계의 구축은 행정의 변화와 마을 주민의 변화, 이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틀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관변 일색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혜적 복지시스템의 주민 주도 동복지협의체 전환 등은 마을 단위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주민 주도형 민주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중앙과 지역의 동등한 권력 분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이다. 권력의 분점과 이를 구조화하는 문제는 자치분권을 위한 기본 토대이다. 광주는 이미 광주정신으로부터 출발된 민주주의 정신과 훈련된 민주주의 역량이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며, 광주의 긍정적 에너지를 통합할 리더십을 밑으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획일화된 다양성, 그것은 광주만의 공동체 표상이다. 

광주다움에 대하여

전고필_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 맛기행 권역 PM



문학평론가이자 조선대학교 교수인 신형철 선생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모퉁이인 ‘ㅁ’이 닳아져서 사랑이 된다고 했다. ‘ㅁ’과 ‘ㅁ’의 반목과 갈등과 존경과 위로가 낳은 것이 사랑인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일구고자 선봉에 섰던 도시 광주의 기반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

80년 5·18 민주항쟁에서 보여주었던 광주의 참모습도 바로 사랑이었다.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 힘도 사랑이었고, 고립된 도시에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물바가지와 주먹밥도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이 경양방죽 매워지듯이 소멸되어가고 있다. 시대의 탓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야속하다. 모닥거리며 서로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던 삶의 모습이 지구 단위별 개발이 시행되며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다. IT공화국이 되면서 모두들 맹목적으로 들여다보는 인터넷 접속망이 그러했다고 하기에 믿기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준혁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광주는 고승이 사는 도시야. 깊은 산속에서 세속의 혼란함에도 결코 귀와 눈을 열지 않지. 그러다가 이대론정 안되겠다 싶을 때 주장자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 그러곤 일갈을 하는 것이야. 이게 사람 사는 꼬라지냐고. 그렇게 일갈을 하고 나면 세상은 평정심을 찾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게 만드는 그런 선승이 사는 곳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고승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속화 되어 버렸어. 광주가 그러고선 이 나라에서 고승을 만나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난 광주에 가고 싶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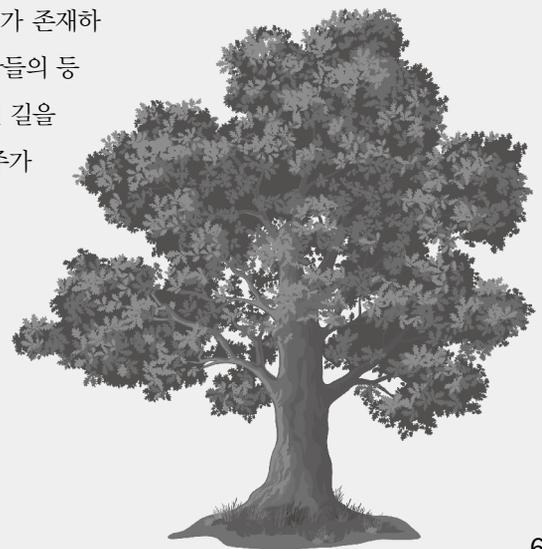
그야말로 늑골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다. 생각해보니 그러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찾아가 상의하고 함께 힘을 도모했던 옛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모두들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도 그중의 하나일지 모른다. 제 밥술가락과 제 목소리만이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중인 내 자신이 되어 버렸으니, 사람의 일이라는 사랑도 내 곁에서 멀어져 있다. 존경심을 가지고 찾아뵈울 어르신들, 그리하여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큰 어른을 찾기 힘들다. 이 어른을 찾으려면 저 어른이 너무나

진단해보면 안타깝게도 광주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키우기보다는 거둬낸 사다리 걷어차기가 만연한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학교에서 제자다운 제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 젊은 활동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되어버렸고, 삶터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만한 후배 만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광주다움의 요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한 내 입장에서는 어른도 모시고 싶고, 영혼을 교감할 수 있는 후배도 만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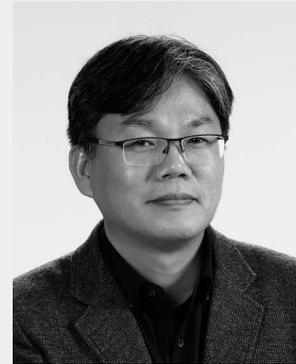
는 곳이 되어 버렸다. 무슨 한 줄로 서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 원로가 되면 자기 자장 안에 많은 것을 포용하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 정작 원로를 찾아야 하는 나는 어쩌면 어느 원로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나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학문에서, 사상에서, 시국에서, 현장의 일속에서 어느 곳이 되었든 어른 한 분 모시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를 닮아 훗날에 어른다운 어른 한번 해보고 싶다.

진단해보면 안타깝게도 광주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키우기보다는 거둬낸 사다리 걷어차기가 만연한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학교에서 제자다운 제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 젊은 활동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되어버렸고, 삶터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만한 후배 만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광주다움의 요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한 내 입장에서는 어른도 모시고 싶고, 영혼을 교감할 수 있는 후배도 만나고 싶다. 그래야 이 도시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연고가 없음에도 차고 올라오는 후학들의 등을 토닥 거려주는 선배, 지친 삶에 비빌 언덕이 되어줄 어른, 잘못된 길을 택하면 좌표를 수정해 주고 앞장서주는 어른이 있는 도시, 예전 광주가 그랬던 모습을 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라는 이름 앞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싹트는 도시'가 있게 되었으면 한다.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도시, 그래서 광주에서 컸다는 말이, 광주에 다녀왔다는 말이 부러움을 사는 도시가 될 날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간절히 소원해 본다. ^^



광주다운 경제의 시작, '경제 민주화'



윤영선_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광주다움을 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신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시민 의식이고 각 시대마다 역사적 사건으로 외형화 된다. 우리 지역 시대정신의 외형화는 수없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역사적 배경은 아마도 '5·18민주화운동'일 것이다. 당시에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공동체를 지켜내며 군부에 저항했다. 이후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가 되었으며, 해방구로서 시민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등 광주다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표현도 기실 민주화, 공동체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다운 경제의 정의도 당연히 민주화와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재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가 형성되어 부의 편중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적 경제지위를 강조하며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 공동체의 해체,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로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시기에 대중들은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성장과 분배의 정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한 상생의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 질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민주화 그리고 공동체로 상징되는 광주정신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다운 경제'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의 권리인 '경제 민주화'로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경제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사회 국가의 철학이 결합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자유(liberty)

주의에서 방임에 가까운 자유(freedom)주의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기업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왜곡하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분식회계, 주가조작, 골목상권 진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이러한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에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국가 경제질서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2항-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은 한국이 사회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비추어 자유 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경제 영역에서 광주다움은 자유방임적 기업질서에 사회국가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먼저 케인스주의의 수요정책체에서 공급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공급주의는 그 단어가 표현하듯이 공급자인 기업을 위한 경제질서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생산 증대, 즉 생산 투자를 위해 법인세 감면, 노동 유연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친자본적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양적완화와 비즈니스프렌드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의 편차만 더욱 커져 여전히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자본적 정책에서 국민의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는 친노동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균형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의 원인만 제공할 뿐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 준칙주의 및 균형재정을 통한 물가변동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후기 케인지언들은 통화정책이 물가변동도 유발하지만, 고용도 증가시킨다는 각종 분석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케인스의 완전고용은 총수요를 통한 사회소비성향 상승을 의미한다. 고용률이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은 소비증가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 정책도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주도 성장 정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수립과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경제력 남용을 막고 분배의 정의를 수립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후자는 통화정책과 조세 정의를 통해 완전고용 수준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다운 경제의 시작은 경제 민주화다. 그런데 혹자들은 ‘경제’를 기업 집단의 이윤추구 활동으로 정의한다. 즉,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만을 경제로 이해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조차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업 집단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규모가 큰 기업의 유치에만 혈안이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칼 폴라니(K. Polanyi) 같은 실체주의자들은 경제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품 전달체계, 사회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즉, 생산과 분배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모두가 사회시스템으로서 경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다운 경제는 기업 집단의 생산을 넘어 분배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다움

노성태_ 광주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인만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 광주인들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아닐까 싶다. 광주인들의 DNA가 된 정의로움과 당당함은 가슴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발로 뛰어 실천으로 옮겨졌는데, 뜨거운 실천성도 광주다움이라고 생각된다.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다움이라고 한다면, 광주다움이 있게 한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려 한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정의로움과 당당함의 출발은 언제부터일까?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광주 서구 절골 출신인 박상의 신비복위소를 드는 분이 많다. 1515년 8월, 당시 담양부사였던 박상은 폐위된 중종비 신 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폐비 신 씨는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으로 좌의정을 지낸 신수근의 딸인데, 신수근은 1506년의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박원종 등에게 죽임을 당한다. 반정공신들은 신수근의 딸이 왕비가 되면 자신들이 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신씨를 7일 만에 폐위시키고, 숙의 윤 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인다. 이가 장경왕후다. 그런데 1515년 3월, 장경왕후 윤비가 인종을 낳은 후 엿새 만에 죽자, 박상은 새 중종을 뽑지 말고 10년 전에 쫓겨 간 신비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소를 올렸고, 조광지처를 폐위시킨 반정공신 박원종 등의 행위는 의리를 저버린 일이므로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광조 등이 적극 옹호하여 죽음은 면했지만 귀양은 피할 수 없었다. 박상의 신비복위소는 죽음을 담보한 정의로움의 실천이었다.

광주·전남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을 극복케 한 최대 항일의 현장이었다. 이는 임진왜란 3대첩의 숨은 영웅들이 전부 남도인이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끈 한산대첩은 전라좌수영의 수군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인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출신의 수군이 그들이었다. 특히 고흥 수군이 다수를 차지했다. 권율의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군이 중심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광주목사였던 권율은 광주의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이치(梨峙)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그 전공으로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관군을 이끌고 대첩을 거둔 곳이 행주였다. 장성 출신의 변이중이 만든 화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보성 출신의 선거이의 활약도 대단했다. 1953년의 제2차 진주성 전투는 관군과 경상도의병장 광재우마저도 외면한 싸움이었다. 이 때 진주성을 지켰던 것은 화순의 최경희, 광주의 고종후, 나주의 김천일 등 광주·전남의 의병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3대첩의 중심

에 광주·전남인이 있었다. 이순신이 ‘약무호남시무국가’라 한 것은 국가를 지켜낸, 정의로움을 실천한 호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말해준다.

광주다움을 규정하는 정의로움과 당당함, 이는 한말 광주·전남이 최대 의병항쟁지였음과 관련이 깊다. 1909년의 경우 전체 의병전투횟수의 47.2%, 참여의병수의 60.0%가 호남에서 일어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특히 전라도 의병이 가장 활발했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의병부대의 활동’이라는 지도에 전라도는 온통 노랗게 색칠되어 있다. 전라도 어디도 의병활동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1909년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일제가 펼친 전라도 의병 섬멸작전이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었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도 광주인들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1919년 3월 10일 작은 장날을 기해 광주교 밑 큰 장터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작은장과 서문통, 본정통(총장로)을 지나 광주경찰서까지, 광주를 진동시켰다. 당시 만여 명이었던 광주 시민 중 천여 명이상이 참여하였고, 104명이 옥고를 치렀다.

10년 후인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광주고보·여고보·농업학교·사범학교 학생 등 광주의 학생이 또 햇불을 올렸다.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여 동안 전국 320여 학교, 54,000여 명이 참여한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었다.

광주는 해방 이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중심지가 된다. 4·19혁명의 발단이 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장송 민주주의’라는 피켓을 들고 광주 금남로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는 마산 시위보다 3시간 여 앞선 전국 최초였다. 4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교문을 박차고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면서 조대부고, 광주공고, 광주상고, 광주여고생들이 합류, 독재 타도를 외친다. 이에 경찰은 무고한 학생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하였고, 금남로·총장로 일대에서 7명이 사망한다. 당시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곳은 광주를 비롯, 서울, 부산 등 세 곳이었다. 광주가 4·19혁명의 3대 성지로 불린 이유다.

광주 금남로는 5·18민주항쟁의 한복판이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집단발포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5·18 당시 광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고립되고 시민군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건의 은행털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질서를 지켰고 피와 김밥을 나누었다. 당당함과 정의로움을 실천한 광주인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인은 감동을 먹었던 것이다. 5·18민주항쟁은 이후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1987년 6월, 금남로에서의 민주항쟁의 외침은 정말 뜨거웠다. 광주 동산초등학교 출신인 이한열의 운구가 금남로에 도착했을 때는 30만 명이 운집, 그와 마지막 작별을 나누기도 했다. 그가 다녔던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최근 전두환이 광주법정에 왔을 때 유리창을 열고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한열 선배의 정의로움을 후배들이 계승한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꾸짖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금남로의 촛불은 또 광주를 뜨겁게 달구었다. 촛불은 광주만이 타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타 올랐다. 그러나 인구대비 참여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광주 금남로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남로를 ‘한국 민주주의 성지’라 부른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박상의 신비복위소, 임진왜란 당시의 3대첩과 한말의병, 광주 3·1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 금남로에서 펼쳐진 광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 등은 광주인들을 당당하고 정의롭게 만든 역사였다. 광주다움인 정의로움과 당당함, 김대중이 말한 ‘행동하는 양심’의 실천은 이런 역사가 축적되고 보태지고 계승되면서 광주인들의 정체성이 되고 DNA가 되었던 것이다. 

‘인권’ 도시 광주, 누구의 인권 도시인지를 묻다

미리내(별칭:봄봄)_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사무실 앞에 크나큰 목련 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날이 따뜻해지면 목련이 하얀 팝콘이 튀겨지듯 팡팡 터져 나오는데 그 목련이 피어나는 걸 보면 ‘아~ 봄이구나’ 온몸으로 실감하곤 한다. 이런 봄날이면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 동료들과 광합성하는 심정으로 산책을 가곤 하는데 그럴 때 찾는 곳이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진 옛 도청이다.

그리고 옛 도청 광장을 지날 때마다 잊히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이 떠오른다. 작년 10월, 옛 도청 광장에서는 광주에서 최초의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미 축제 장소 섭외 때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고 어떤 유명 개신교 목사는 광주 시청 시장실을 찾아 무릎까지 꿇으며 광주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막아달라고 읍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물리적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행사를 끝내는 것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맞이한 당일 아침,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들이 광장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

해 이미 경찰들은 경찰차와 펜스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펜스 안과 밖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호통을 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어디서 이런 축제를...” 나이 든 남성분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축제를 준비 중인 사

람들을 향해 샷대질을 하고 계셨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의 표정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옛 도청 광장을 아냐고? 모르지 않는다. 광주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자라왔고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시민군들 중에는 당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신발을 수선하던 김씨, 포복상을 하던 이씨... 그렇게 이름 모를 많은 이들이 함께 싸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시민군들 이외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들은 시민군들을 위해 주먹밥을 준비하고 여학생들은 사망한 시민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선무방송을 하며 광주를 돌아다녔다는, 모두가 함께 역사의 주인이 되었던 그 역사를 안다.

그리고 안다. 당시 광주는 혼자 떠 있는 섬처럼 외로웠으며 이후에도 광주 출신이라는 말을 다른 지역에서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도 일베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절라디언'이라는 멸칭으로 전라도 사람들을 여전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왜곡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뻔뻔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광주, 오월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그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이 365일을 숨어살다 겨우 하루, 아니 겨우 몇 시간동안이나마 '자신도 이 사회의 한 명의 구성원이고, 이 곳 광주에도 성소수자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펜스가 쳐진 축제의 자리에는 성소수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불교의 정신으로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불교 신자들과 목사, 신부님, 장애인이 함께 했다.

인권도시 광주라고 이야기한다. 오월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여전히 그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일까. 돈, 학력, 성별, 직업의 차이 없이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되듯 가장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권은 그런 아픈 곳을 보듬고 그 아픈 곳에 머무는 이들과 연대하는 가장 적극적 실천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아픈 곳이 많다.

광주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빛진 마음을 갖기 위해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타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광주는 오직 광주만으로 지켜온 것이 아닐 거고 우리도 그들의 삶에 함께 빚겨온 것일 게다.

올해 두 번째,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그 때 광주가 다시 날 서게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너른 품으로 그들에게 마당을, 광장을 열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터무늬가 오롯하게 살아서, 모두 다 행복한 도시



김경일_ 사단법인 푸른길 이사장

광주는 늘 살가운 도시, 훈훈한 사람의 정이 살아있는 도시다.

맛과 멋과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결을 이루는 광주는 오월이다.

늘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살아있는 의리정신이 80년 오월에 표출되었고, 세월호를 지나 촛불혁명으로 찬란하게 꽃 피고 있다. 세상의 모든 흐름에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자발성, 그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광주다.

우리들의 삶이 수많은 결로 이루어지고 변화와 창조로 꽃피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키워드인 '광주다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다.

'광주답다', 또는 '광주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일 때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연 광주가 격에 맞는 형용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붙인 허명에 꼴불견스러운 자위를 하고 있거나 않은지 곰곰 따져봐야 한다.

터무늬가 아름다웠던 광주, '품격' 있는 '광주다움'에 대하여

“어디 한 군데 죽은 곳이 없이 참 잘 그린 지도인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생생한 꽃 같습니다.”

지난해 읍성을 중심에 두고, 앞산과 뒷산과 무등산이 균형 잡혀서 그려진 146년 전 1872년에 그려진 광주 지도를 앞에 두고 모닥 최봉익 선생님이 던지시 건넌 말씀이 그랬다.

전라 감영의 이름 모를 화원이 칠했던 진초록 색깔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산의 형세가 마치 꽃잎처럼 감싸고 있는 옛 광주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터로 그 무늬가 아름다웠다. 지도 한 장을 놓고 둘러앉아서 시작되었던 소소한 이야기가 광주의 정체성, 광주정신, 광주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와 예술, 광주사람들로 결가지를 쳐가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회색빛 건물들과 도로가 넘쳐나는 메마른 도시가, 예전에는 초록빛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던 생명의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지난 해 광주 옛지도 복간을 하게 된 뜻이야기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이 옛 지도가 전하는 의미는 웅숭깊습니다. 먹빛으로 상징되는 흑백의 시대에 '왜 녹색지도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미래 광주를 새롭게 살펴보는 '광주광합성운동'의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광합성은

동의 원리와 방법에서 도시공동체 창조의 철학을 배우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한 ‘광주답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광주공동체를 일구라는 희망의 메시지라 믿어집니다. 이 옛지도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경양호와 태봉산, 도시 숲이었던 유림 숲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이 지도는 이 땅의 역사와 터무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지도를 살펴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지도를 펴서 초록의 꽃잎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터무늬 속에 햇빛이 찰랑거리고, 초록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시민들은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광주, 당당하고 정의롭고 배려가 살아있는 도시가 펼쳐질 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광주의 격, 도시의 품격은 우리들 터무늬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터무늬가 광주의 맨얼굴이다. 그것이 광주의 끝이고 시작이다.

광주의 보물—무등산,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푸른길, 앞산과 뒷산들

광주는 도시의 공유재인 자연환경과 생물자원들이 살아있는 풍성한 숨터가 많다.

광주는 무등산과 광주천과 황룡강과 영산강이 중요한 생태축이다. 광주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 사람을 보듬어주던 천년 이전의 훼손되지 않은 물길과 산세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광주의 진산 어머니 무등은 호남정맥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광주를 안고 있다. 광주에 터를 잡은 옛사람들은 무등산을 용(龍)으로 여겼다. 무등산의 펄펄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기운들은 두 갈래로 뻗어내려 광주의 앞산 뒷산이 되었다. 안산으로 어등산을 중심으로 광산구의 산들까지 합하면 광주는 생명의 기운이 충일한 공간이었다. 치렁치렁한 산자락들은 그렇게 마을로 스며들어 맑은 바람과 산의 생생한 에너지를 전해 주었다. 다정하게 마을과 사람들에게 생태의 순환 고리를 잇대어주며 손을 잡아 주었던 산들의 수고 덕분에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나누고 살아왔다.

급격한 도시화로 생태축이 근간이 흔들릴 때마다 시민들의 ‘자존감’도 같이 불안했다. 도시는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단절될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푸른길에서는 ‘회복력이 보장된 도시’, ‘물순환 도시’, ‘바람길이 배려된 선선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단초를 생각한다.

폭염도시 열섬에 데인 화끈거리는 상처엔 녹지와 습지가 치료약이다. 민관이 더불어 힘을 모아 폐선로를 초록 숲길로 바꾸어 내고 난 뒤, 푸른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는 도시에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 숲길이 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자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결코 뗄 수 없는 몸통과 팔다리의 관계처럼 많은 연관성을 이루고 살아왔던 인간들이 스스로 몸통을 버림으로 하여 연계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커다란 상실감이요, 상처임에 틀림없다. 도시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절대적 부족으로 단절되어버린 녹지 생태들의 상실감과 그로인한 자괴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도시의 삶에서 자연을 되살리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광주다움을 살려내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80년 오월 너나없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주먹밥을 내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뜨거운 시민정신의 광주, 광주의 따듯함도 그곳에서 출발한다. ♪

도시, 건축에서 광주다움

- 걷기 좋은 도시이면 어떨까?

이효원_ 전남대학교 교수



건축을 나무, 도시를 숲으로 하는 비유가 있다. 한 종류의 멋진 나무들로 이루어진 좋은 숲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그 어우러짐이 좋은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그 숲을 상징할 대표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겠다.

도시도 딱 이렇다. 대개의 도시는 그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 중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재료와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로 채워져 있다. 붉은 벽돌과 기와로 도시 전체가 채워진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이며, 목조 구조 외벽에 회반죽을 덧칠하고 그 위에 도드라진 색이 칠해진 독일과 스위스의 도시들, 작렬하는 햇볕 아래 희게 빛나는 그리스의 산토리니 마을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의 색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도시 전체가 채워졌어도 멋지다. 마천루가 상징이 된 뉴욕 맨해튼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제는 없어진 기와집이 가득했을 우리의 옛 도시들도 남아있었다면 괜찮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도시 대부분의 건축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도시들은 아주 나쁜 평가를 받는다.

도시가 어우러지는 경우로서는 우선 시간으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앞의 도시들이 특정한 시간을 딱 잡아놓은 것이 그 도시의 매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 도시 안에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공존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다. 런던이나 파리가 그렇고, 서울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600년 역사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는 자체가 매력이다.

앞선 두 가지의 방식에 덧붙여 모든 도시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랜드마크다.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이 그 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셋 다 그것이 위치한 도시로부터, 그 도시의 특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탁월함이 그렇게 된 것이다. 눈에 띄는 하나만 잘 되면 되니 많은 도시들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된 도시는 겨우 몇이다. 특별히 내세울 정체성 없는 도시일수록 이 방식에 끌려 한다. 하지만 멋진 건축물 하나를 얻는다는 것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광주의 건축은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진 광주라는 도시는 여러 모로 밋밋하다. 일단 역사라고는 일제 강점기

이후 성장한 도시이니 그리 길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쌓인 흔적들이라고 해봐야 없기도 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다 없애버렸다. 도시의 대부분은 7,80년대 콘크리트로 급하게 지어진 건물들로 채워졌으니 이 또한 별로다. 콘크리트로 지으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건축이 철저하게 경제적 능력에 따라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건축은 딱 그 정도다. 게다가 누가 뭐래도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랐을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덧붙여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있는 도심의 상황을 보면, 나빠질 일만 남았다.

그런데, 딱히 서운해 할 일도 아니다. 뭐라 내세울 것 없는 도시들이 대부분이다. 도시 간의 경쟁으로 도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겨우 산업도시, 군사도시, 교육도시 정도로 불리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광주는 의향, 예향, 미향 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긴 시간 축적되었고, 자타 동의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 추상적인 지역의 특성을 건축의 영역에서 공통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특정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나아가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는 지역성은 쉽지 않다.

건축에 요구되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고, 그것들이 쌓여 다른 곳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 정도의 지역성을 바란다. 더 시간이 흘러, 그것들을 보편적 언어로 차이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 일이다. 어찌되었건 지역성, 광주다움은? 현재 없다. 없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가야 할 일이다. 도시와 건축에서 광주다움? 제안하자면, 그냥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해보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간단한 것 말이다.

처음에 인도의 포장 상태를 좋게 하고 가로등이나 버스 정류소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해보자. 건널목도 차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해보자. 인권도시답게 노인이나 장애인의 교통 권익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보자. 걷는 주변에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 가리지 말고 걷는 길 주위에 나무를 심어보자. 일찍이 광주가 먼저 했지만 뒤늦게 대구가 계속해서 성공한 일인데, 다시 시작해보자. 여름의 온도가 광주가 더 높아졌다. 이것도 해결하고, 미세먼지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푸른 길이 광주 곳곳에 있다면 좋을 일이다.

이것들을 하고 나면, 이제 구경할만한 인공의 구조물들 한번 만들어보자. 다른 거 말고 광주폴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다. 그간 폴리에 참여했던 건축가를 포함한 작가들의 이름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도시들에 없는 우리만의 것이고 몇 개 안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쌓이면 이것도 큰 자산이다. 전주 한옥마을에 비해 현대적이며, 문화적이다. 광주폴리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지어질 건축물의 디자인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한 개인의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생각을 시민 모두가 하게 하자.

광주다움을 기왕의 것에서 내부에서 찾는다면 없다고 말했다. 합의를 보고 작은 것부터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모여 광주를 상징했으면 좋겠다. 나아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문화가 녹아있도록 도시를 다루는 태도가 광주다움이었으면 좋겠다. 광주는 5·18의 도시이며, 푸른 길을 만들어 낸 도시다. 거리에서 도시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인 사람이다. 도시의 모든 정책이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해할 때, 관광객도 오고 기업도 온다. 오래 걸릴 일이지만, 달리 할 일도 없지 않은가? ^^

문화인 탐구생활



‘원림과 불탑’ 다시 ‘서역’

— 필생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건축학계의 설록홈즈 천득염 석좌교수

김정희_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광주에서도 우선 문화재 보전을 위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실될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야겠지요.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두거나 실측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VR이라든지 새로 나온 기술적 작업만을 눈여겨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수의 전제 조건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설록 흠즈'가 되어 공간의 감동을 추리하는 이라고 한다. 집을 설계하고 짓는 건축가와 달리 건축학자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역사나 철학을 포함하여 건축 이론, 도시 설계, 친환경 및 주거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다. 건축학의 권위자이자 문화재 전문위원과 한국건축역사학회장을 역임한 천득염 전남대 교수가 지난 2월 말 정년퇴임하였다. 천득염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나 시간의 비늘이 쓸려간 자리에 교수와 학자로서 큼직하게 남겨 놓은 발자국들을 따라가며, 짧지만 메아리가 남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다.

김정희(본지 편집위원장, 이하 김) 지난달 말 35년 넘게 재직하셨던 전남대학교에서 퇴직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리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천득염(전남대건축학부 석좌 교수, 이하 천) 말 그대로 정년은 개인사에서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악기 연주나 댄스 등 동적인 활동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받고 취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헤비다트(사랑의 집짓기) 활동이라든지 문화운동과 병행한 교육, 도시공간의 재생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동서문화교류에 대해 원하는 단체나 모임 등에 나가 무료 강의로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문화교류 분야에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웃음). 최근 『월간 한옥』에 「천득염 교수의 서역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물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서양문명의 전래 과정,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소통되며 변모하는 과정을 문화교류 차원에서 살펴보고 직접 답사한 기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김 서역(西域)은 중국에 인접한 서쪽지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라 부르는 동서양의 문화 소통과 공존의 순례길에 대한 흥미 있는 연재물이 될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많은 연구 분야 중 특별히 건축사를 전공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천 일단은 고등학교 때 세계사, 한국사 등 역사 과목과 영어를 특히 좋아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장차 한국의 전통건축을 전공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장학금을 받았지요. 담당 교수님 추천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 학기에 한 번 전통건축 관련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입학 당시엔 학부에 서양건축사만 개설되었는데 군대를 다녀오니 한국건축사가 개설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학부를 마치고 석사 박사를 전공했고, 그게 그 뒤로 연구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서양의 건축과 한국의 전통건축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 우선은 건축 재료 같은 것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또한 우리 전통건축은 자연과의 동화나 동양적 사고에 기반을 둔다면 서양건축은 자연에 순화한다기보다 이겨내는 것 또는 다소 역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태로 보아

도 직선적인 서양건축에 비해 전통건축은 곡선을 많이 쓰고, 짓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건축은 세우고 맞추는 가구적 형태라고 본다면 서양건축은 하나하나 쌓아가는 조적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종교나 주거형식, 권력자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김 어떻게 보면 대지에 대한 사유가 서로 다른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칼릴 지브란의 '네 집은 네 큰 몸'이라는 글이 떠오르는데요. 동서양 건축물은 기본 밑그림인 개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 그렇지요. 우리 전통건축은 자연에 대한 생각, 즉 좌향이나 풍수, 땅의 기를 중요시했고 또한 동양의 건축물은 집에 가족을 기르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집(家) 자를 보아도 지붕아래 돼지가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김 교수님께서서는 특별히 탑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탑에 대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천 제가 탑, 불교의 전래 과정에 대한 총서를 10권 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세 권이 나왔고 네 번째는 태국, 간다라는 9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중-일까지 합하면 10권이 넘을 거예요. 아마 남은 제 연구의 큰 과제이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 주변국 그리고 한국까지 널리 퍼졌는데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지요.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들은 대개 인도 주변만을 들여다보는 과제였다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인도 불교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의미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1년간 있었을 때, 두 분의 지도교수가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연구를 권하셨지요. 그 이후 연구비를 받으며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 조사 작업까지는 무난하게 잘 이루어진 편이지만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연구비와 연계되어야 하는 출판 시스템이 아쉽지요. 또한 내용면에서 읽기 쉽고 재미있게 써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제 연구는 기본 자료를 모아 종합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학술적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김 광주 전남의 많은 근대 건축물과 초기 현대 건축물, 문화유산들이 공동주택 등의 사업으로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문화재나 건축물, 기록들을 보존할 방법이 있을까요?

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인데 우선은 국가 예산으로 그런 공간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고 민간 차원에서는 헤리티지나 공유화 같은 보존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자가 문화재 지정을 받아 국가 지원금을 신청해 보수하는 방법이지요. 근대 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받아 내부를 고쳐도 됩니다. 지금 부산, 군산, 인천 같은 지역은 근대유산을 잘 활용한 곳이지요. 광주의 양림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지나치게 바꾸어 버린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보수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원래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보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그것을 향유하는 관람객의 편의 문제 등 접점을 찾는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 방법은 같은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은 과감하게 고쳐서 사용하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건물 유지관리가 되면서 지속성이 있겠지요. 국가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하고 등록문화재는 화장실이나 창호 등의 내부를 과감하게 고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우선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실될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야겠지요.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두거나 실측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VR이라든지 새로 나온 기술적 작업만을 눈여겨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수의 전제 조건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채워 박제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건물로써 활용해야겠지요.

제가 전전 시장 재임 당시 주장해본 일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이 전당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것이 운영되면 좋겠지요. 실제로 제가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5개 정도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결국 정치적인 변화 과정에서 무산되었지만, 서울의 '리움'처럼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특화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좋겠지요. 요즈음 양림동 골목의 한희원 미술관처럼 기존의 근대건축을 활용한 소문화운동이 성공하는 것은 근대건축도 살리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도 만들어 내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꿈꾸시는 멋진 도시가 광주의 미래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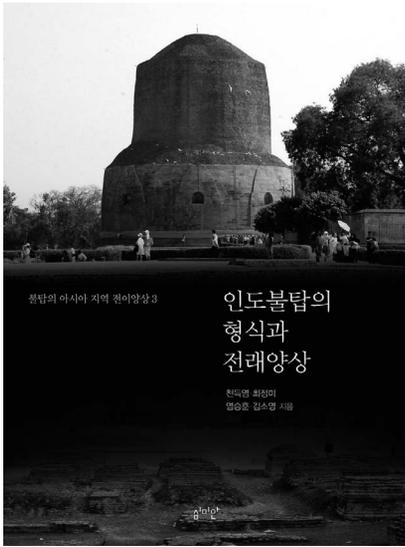
시선은 디지털적인 것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것에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퍼니처를 도시의 아이콘으로 오래 기억하고 화가, 무용가, 작가, 배우 등 예술가들이 도심의 활력을 견인하는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예향인 광주가 되도록, 문화재나 오래된 건축물을 복원하여 도심 재생을 기획할 때 상기해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광주 내 근대건축을 활용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천 앞서 언급한 소문화운동은 근대건축의 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운동에 있어 광주와 경상도의 사람들은 서로 DNA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웃음). 오랫동안 문화재위원을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쪽 사람들은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를 활용한 이벤트 등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의 관계자들은 인식의 차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도 문화재 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하려는 일에 대한 반감도 강하고 스스로 지역의 귀중한 자원을 평가 절하하기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겠지만, 광주의 정서나 관념이 고착화되어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문화행정이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도 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인문도시는 인간중심의 도시입니다. 신호체계나 보도블록 등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하고 즐겁고 편안해야 합니다.

또 광주시가 시정 건축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광주다운 철학이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심의 고밀도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시를 비어있게 해서 안 됩니다. 도심에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주거공간이 도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시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서민 지원 정책을 해서 5~7층 건물에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도 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주건축백년』과, 직접 학교를 탐사하며 발췌 정리한 자료집인 『광주교육시설백년』은 광주문화재단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김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의미 있는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공동화가 되어가는 인근 농촌의 마을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면 좋을지, 혹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3년 전에 광주 전남의 종가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건축 분야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종부가 한국인이 아닌 다문화 여성인 경우도 있었지요. 그들이 종가에 정착해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교육시설이나 병원 등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해결책으로 도시의 종부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선산을 태양광 같은 수익시설로 활용하든지, 기존의 마을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거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지요. 건축 분야에서도 시골의 건축 재료나 소재를 이용해 기능인 양성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 방법이겠지요.

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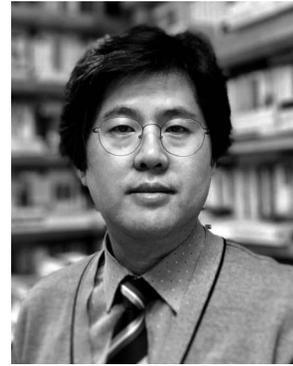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영혼과의 교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건축분야의 노벨상인 프리츠키 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 페터 춥토크의 철학이 담긴 말을 떠올렸다. 도심재생이나 문화재의 복원에서 철학과 인문정신을 강조한 천득염 교수는 최근 인도불탑과 주변 불교국가의 불탑 및 전래양상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정리해서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을 출간했다.^^

김 그동안 지역의 건축문화와 도시재생의 변화과정을 남다르게 지켜보시면서 정말 광주다운 특별한 철학과 정신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광주시가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나, 또 이제 퇴임하셨으니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천 세계에서 일등이라고 자부하는 수투파 관련 자료와 12만여 점의 불교 사진 등을 여태껏 모아왔습니다. 또 올해 3월 말 즈음 인도에 다녀올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간다라 파키스탄에 가서 사진을 더 찍어 올 예정입니다. 추후에 이 자료들을 잘 정리해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 연구 자료들로 도움을 주는 게 무엇보다 기쁩니다. 또한 시리즈로 내리는 10권의 저서들을 판권을 포함해 기증하고, 이 자료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공유해야 빛을 발할 수 있겠지요. 기존에 발행했던 『광

겨울이어서 더욱 홀로 지키며 푸르른 누정 '독수정'



임준성_ 광주여대 교수

왕조의 교체기에 새로운 나라를 거부하고 72현처럼 두문동으로 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대신 전신민은 외로운 신하로서 낙남(落南)을 결정했다. 가급적 한양에 더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무등산 북쪽 산기슭 아래 자리를 잡았다. 두문동 72현과는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겨울날 눈 내린 독수정에 홀로 오른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대숲을 뒤흔든다. 순간 바람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대숲이 내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저 고개 들어 올려보면 파란 하늘만 보일 뿐이다. 매서운 바람이 길 따라 굽이굽이 몰아친다. 자꾸만 손을 모아 얼굴을 비벼야 했다. 껏불이 간지럽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가파른 길 그늘에 쌓인 눈이 얼음길로 변해 조심스레 올라야 한다.



독수정 현판

'산음동(山陰洞)'이라 새긴 바위를 만나자 곧 독수정이 시야에 들어왔다. 산의 그늘이라는 이름 남쪽 산을 등지고 있어 산음이라 했을 것이다. 그 산은 바로 무등산이다. 따뜻한 양지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와는 반대로 어찌서 북쪽으로 향했을까. 거기에 독수(獨守)의 뜻이 숨어있지 않을까.

독수정은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 말 병부상서를 지낸 서은 전신민(瑞隱 全新民)이 세웠다고 전해온다. 현재 누정은 후손 회종과 완종이 1972년에 새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누정 건물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어서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대신 1982년 주위의 원림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 지방기념물로 제61호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독수정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 해인 1393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15년 후손 홍혁에 의해 새로 고칠 당시에 쓴 것으로 보이는 「독수정중수기(獨守亭重修記)」에 따르면 전신민의 아들인 청절공(淸節公) 전인덕(全仁德)이 세웠다고 한다. 누마루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면 현판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그 중 「독수정술회병서(獨守亭述懷竝書)」는 전신민이 고려 개경을 떠나 담양으로 내려와 누정을 지은 사연이 있다.

얼마 전 비바람에 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서석산의 북쪽 기슭 십여 리쯤에 터를 마련했다. 어지러운 세상의 외로운 신하로서 나라 잃은 슬픔을 더욱 이길 수 없었다. 그저 죽지 못하고 서글픈 마음을 돌 데 없어 한스려울 뿐이다.

마을 동쪽 기슭 높고 굽이진 곳에 시내 있어 그 위에 누정을 세워 독수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영원히 두문불출하겠다고 맹세하겠다는 뜻이다. 또 뒤뜰에 소나무를 심고, 앞뜰에 대나무를 옮겨 심었다. 눈 내리는 아침과 달 밝은 밤에 여기를 서성거리면서 시를 읊어 시름을 잊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삼았다.

왕조의 교체기에 새로운 나라를 거부하고 72현처럼 두문동으로 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대신 전신민은 외로운 신하로서 낙남(落南)을 결정했다. 가급적 한양에 더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무등산 북쪽 산기슭 아래 자리를 잡았다. 두문동 72현과는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나는 고려의 신하임을 홀로 지키겠노라’를 ‘독수’에 담아 누정의 이름으로 삼았던 전신민의 비장함이 느껴진다. ‘독수’는 이백의 오언절구 「소년자(少年子)」의 마



독수정



독수정술회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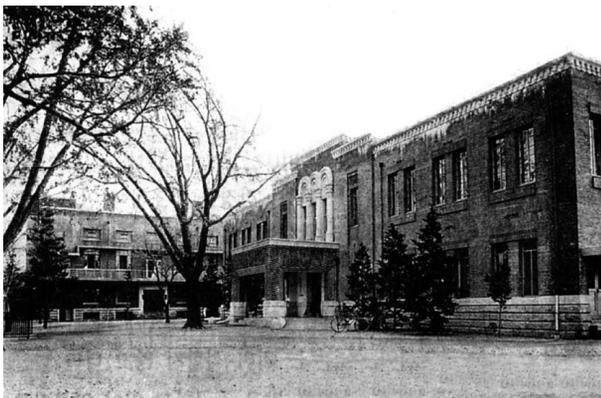
지막 구절인 ‘이제는 누구인가[夷齊是何人]/서산을 홀로 지키다가 죽었다네[獨守西山餓]’에서 유래했다. 은나라의 신하였던 백이와 숙제가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자, 이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끝내 굶어죽고 만 고사를 들고 있다. 비록 백이와 숙제처럼 목숨을 바치지 않았지만 무등산을 수양산 삼아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끝내 고려의 외로운 신하로 남겠다는 전신민의 지조와 절개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늘 푸른 기상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風塵漠漠我思長	세상일 답답하여 내 생각 깊거니
何處雲林寄老蒼	구름긴 숲에 이 몸 맡길까
千里江湖雙鬢雪	천리 밖 강호에 양 귀밑머리 희어져
百年天地一悲涼	백년삶 천지간에 슬프고 처량하네
王孫芳草傷春恨	왕손이 늘던 방초에 봄을 한탄하고
帝子花枝叫月光	두견새 반기던 꽃가지 달빛에 눈물짓네
卽此青山可埋骨	여기 청산에 뼈 묻고자
誓將獨守結爲堂	홀로 지키겠노라고 집을 지었네

전신민이 지었다고 하는 「독수정원운(獨守亭原韻)」이다. 왕조교체기에 세상은 혼란스럽다. 역성혁명을 내세운 명분은 고려의 외로운 신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입을 닫고 몸을 더욱 숨길 뿐이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 것을 어찌 백년 인생에서 회한이 없겠는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적응할만하다 싶으면 이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백발이 되어있다. 늘그막에 이르니 고려의 신하로 지냈던 영화로웠던 옛 기억은 점점 또렷해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요 한낱 꿈일 뿐이다. 그럴수록 독수의 의지는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점점 푸르기만 할 뿐이다. ♪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어떻게 되고 있나

홍성철_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 3월 28일에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기본 계획 대국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6개월간의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기초해 문체부를 거쳐 국무총리 결제로 확정된 정부의 '복원 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생략되어 복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이해가 충분치 못한 아쉬움 있어 안타까웠지만, 대국민 설명회로 옛 전남도청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전체 공정의 첫 단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농성투쟁과 대책위 활동을 전개한 지

940여 일 만에, 정부의 복원약속 후 문체부와 광주시 그리고 대책위로 구성된 복원협의회가 운영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복원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은 복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1년여에 걸쳐서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로 복원안을 구체화하고 곧바로 복원 공사에 착수하며, 공사 기간을 약 2년을 산정해 2022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는 실질적인 단계다. 여전히 과제는 만만치 않게 산적해 있다. 1980년 5월 항쟁 당시의 건물원형에 대한 확실한 자료(건물도면, 공간과 장소에 대한 사진 및 영상 등)와 항쟁의 10일간, 이 공간에서 전개된 여러 상황과 내용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최대한 원형을 복원해낼 것인가가 당장의 과제로 나선다. 건물의 공간을 복원하는 것 못지 않게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옛 전남도청과 항쟁의 가치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즉 활용방안과 운영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확정해 가야 한다. 또한 자칫 옛 전남도청 복원에만 치우치다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 있어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적지 않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은 복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1년여에 걸쳐서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로 복원안을 구체화하고 곧바로 복원 공사에 착수하며, 공사 기간을 약 2년을 산정해 2022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는 실질적인 단계다. 여전히 과제는 만만치 않게 산적해 있다.

은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고도의 시민적 지혜를 모아 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당장 건물에 대한 원형복원뿐만 아니라 활동방안과 콘텐츠,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등 다음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더불어 중요하게 나서는 막중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려면 현재의 '옛 전남도청 복원지원팀'처럼 빈약한 임시기구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임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복원지원팀은 복원을 위한 권한도, 예산도,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힘에 부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서는 문제와 향후 과제들을 실패한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여 어떻게 다수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의 복원전담팀으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옛전남도청 복원사업이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에 부합되게 차질 없이 진전되려면 무엇보다도 권한과 예산, 전문적 인력을 갖춘 전담조직으로 정부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복원전담팀과 복원협의회는 정부에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추진단'과 같은 전담조직을 시급히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바라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당부는 복원을 위한 정부의지가 굴절 없이 현실에서 반영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지의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광주시는 협조를 벗어나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대책위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내는 노력에 힘을 더 쏘아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문화현장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박시영_ 5·18민중항쟁기년행사위원회 39주년 집행위원장

5·18민중항쟁 39주년이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된 올해의 슬로건은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이다. 작년의 실적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많은 공모가 있었다. 뜻풀이는 각자 다를 수 있으나 내 생각엔 오월정신이 이 땅의 모든 어둠과 거짓을 드러내고 투쟁과 환희가 용솨음치게 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

39주년이라고 해서 38주년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5·18민중항쟁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얼마 전 재판정에 들어가는 전두환의 모습은 망언과 역사왜곡, 빨간딱지 붙이기의 뿌리다운 모습이였다. 그 뿌리에 기댄 극우보수집단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에게 무슨 반성과 사죄를 바라랴. 전두환이 헬기기총소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위권 발동’은 새빨간 거짓이 될 것이고 ‘내가 발포명령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 그에게 사죄와 반성은 꿈에라도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굳이 39주년의 의미를 찾자면 기총소사 희생자 명단, 미군 및 국방부 정보라인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 등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 진실규명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는 것이다. 사죄와 반성에 기



올해 5월 17일 전야제는 '진격'이 될 것이다.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진격한다. 당연히 무대는 이동한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의 민주성회가 피날레가 될 것이다. 진격의 과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독재와의 투쟁, 세월호의 피눈물, 촛불의 감격 등이 담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월에서 통일로! 이보다 더 절실한 슬로건이 있을까?

대지 않고 법에 근거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5·18 부정세력의 정점인 자유한국당과 보수 꼴통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올리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올해 5월 17일 전야제는 '진격'이 될 것이다.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진격한다. 당연히 무대는 이동한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의 민주성회가 피날레가 될 것이다. 진격의 과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독재와의 투쟁, 세월호의 피눈물, 촛불의 감격 등이 담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월에서 통일로! 이보다 더 절실한 슬로건이 있을까? 오월을 부정하고 빨간색 칠하기에 몰두하는 세력은 반오월, 반통일 세력이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지,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자들, 민의의 전당에서마저 역사를 날조하는 자들이 반드시 법에 의해 단죄되는 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출범식을 민주광장이라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시민참여 공모사업의 폭을 넓히려 하는데 이는 오월과 관련한 정세의 반영이다. 시민이 구경꾼이 아닌, 저마다 연출가이고, 자원봉사자이며, '80년 오월의 나'라는 감동을 끌어내고 싶다. 「농민가」라는 노래에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투쟁의 축제, 민주주의 승리의 여정, 언젠가는 기필코 밝혀질 진실을 소망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싶다.

내년은 5·18민중항쟁 40주년이다.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들이 많다. 동의한다.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에 대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사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무엇인지, 38년간 진행되어오면서 정형화된 행사위 사업들이 관행이나 습관에 빠져있지 않은지, 전국화, 세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국민적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체계와 상설화 등 고민의 지점들이 많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월이 지나면 존재감이 없다가 주요직책인 상임행사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갈등으로 연말연시에 즈음해 시간에 떠밀리듯 진행돼왔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지속성과 확장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고민이다. 그래서 올해는 5월 행사 논의 기간을 거쳐 꺾어지는 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 행사위가 허송세월을 줄여야 한다는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듣고 있다.

한마디 덧붙여 당부 드리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18민주유공자 단체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합된 조금은 특수한 조직이다. 그리고 38년간의 투쟁의 산물이며 그 투쟁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운영의 문제점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주길 바란다. 물론 행사위가 해결해야 할 고민이나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중요하다. 국민적 여망을 잘 담아내는 행사위가 되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행사위는 치열한 논의, 합의에 대한 승복,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며



윤수안_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2018년 세월호 4주기 며칠 전, 광주독립영화관을 개관하였다. 광주의 영화인들이 모여 이뤄낸 성취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일대 사건은 광주국제영화제의 부정한 운영비 사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광주문화계로부터 주변인 취급을 받았던 광주영화인들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펼쳤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체를 결성하고 그동안 주춤했던 지역영화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하 연대)는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연대는 영화의 불모지 광주에서 '광주영화'를 선포하였다. 다양한 영화를 보고 교육받고 제작할 수 있는 광주영화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서 실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광주에서 창작으로써의 영화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영화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청년들은 광주를 떠나갔다. 저예산 영화를 만들기 위한 촬영, 조명, 사운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영화제작 교육 또한 거의 없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 장비와 교육의 성격이 다르다.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하였고 광주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논의에서 항상 영화는 빠져 있었다.

이러한 광주의 현실 속에서 연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광주영화정책을 만들기 위해 광주영화인들은 수차례의 세미나와 수십 번의 모임과 워크숍을 가지며 광주영화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런 광주영화인들의 활동에 광주시 문화산

업과도 움직였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사업 공모에 광주시와 함께 신청하였고 마침내 독립영화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개관하던 날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드디어 '광주영화'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구나. 시민에게 굳게 닫혀있는 영상복합문화관은 그렇게 문을 열게 되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첫해 운영이었음에도 많은 일들을 하였다. 개관을 맞아 15명 이상의 유명 영화인들을 초청하여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



광주독립영화관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다. 지역영화를 활성화 시킬 전초 기지이다. 우리에게 영화는 소비와 오락의 장르였지만 이제 창작과 자아를 발견하는 매체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로비도 비좁고 사무공간은 더욱 비좁다. 안쪽의 교육공간으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채 출입을 금하고 있다.

를 하였다. 서울독립영화제 단편영화 섹션, 세월호 기획전, 오일팔 기획전, 통일 영화 상영, 여성영화 기획전, 광주영화 기획전, 한국 애니메이션 기획전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청소년영화제, 여성영화제, 독립영화제를 유치하여 지역의 독립영화의 저변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한국독립영화만을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는 광주극장과 상영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청소년 영화교육과 실험영화 교육을 진행하여 영화 인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광주독립영화관의 사업들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독립영화관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다. 지역영화를 활성화 시킬 전초 기지이다. 우리에게 영화는 소비와 오락의 장르였지만 이제 창작과 자아를 발견하는 매체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로비도 비좁고 사무공간은 더욱 비좁다. 안쪽의 교육공간으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채 출입을 금하고 있다. 뻥히 쓰지 않는 방치된 공간을 관리라는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자리 잡고 있는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적인 공간이지만 영화상영 이외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공간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에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은 광주의 영화·영상인들에겐 애증이 많은 공간이다.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처럼 시민들을 위한 영상창작, 미디어도서관, 교육 공간, 시네마테크 공간으로 기대했으나 거의 10년째 방치되어왔다. 현재는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소수 창작자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광주독립영화관은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배우고 소통하고 만들 수 있는 영화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영화인들과 전문가들이 광주영화센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광주독립영화관의 개관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일 뿐이다. ♪



독서는 구도(求道)인가

-토·행·독 11년의 길

김정희_ 시인, 본지 편집장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마이크 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소문난 독서광으로 알려진 빌 게이츠의 말이다.

최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모여서 독서하며 토론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성인 40%는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독서 모임의 증가는 유행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은 기존에는 형식적

관계를 위한 관계였다면 요즘은 개인의 관심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마치 17세기 프랑스의 유명 살롱들을 중심으로 예술과 문학이 활발히 성장했던 모습과 비교하여 21세기 ‘살롱’의 부활을 말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축소와 1인 가구의 증가, SNS로만 이어지는 관계의 피로에 대한 탈출로 오프라인 모임을 찾는다고도 분석한다. 교양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독서 모임은 외연의 확장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



토행독(토요일의 행복한 도서 모임)은 11년 전 2008년 1월 5일 토요일 첫 모임을 시작해서 2019년 3월 16일 토요일까지 명절을 포함해 한주도 쉬지 않고 582회 동안 독서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최초에는 광주 카네기클럽 소모임으로 시작됐고 천권 읽기가 목표였다고 한다. 시작은 카네기 프로그램이었지만 독서모임의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이 더 많았으며 현재는 세무사, 치과 의사, 교사,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30여 명의 회원

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이도 5~6명이라고 한다.

매주 읽을 책의 선정은 회원들이 읽고 싶은 책을 단독방에 올리면 모임의 부회장과 도서 선정 위원이 함께 그 달의 책을 선정하지만 접하기 쉽지 않은 과학, 음악, 미술 관련 등 다양한 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애쓴다. 물론 미리 다음 모임에 읽을 책을 선정해 알리는 것은 기본이다. 모임에서 토론의 방식은 책모임 진행자의 요구에 맞춰 글쓰기나 기타의 활동을 하고 책에서 가장 큰 영감이나 귀감이 된 부분을 돌아가며 말하는 방식의 토론을 한다. 독서를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토론을 할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 되고, 독서 효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독서를 읽음에서 끝내지 않고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배척은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몸과 머리가 함께 좋아지는 독서모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토행독에서는 우리 문단의 거장 조정래 작가의 문학과 『태백산맥』의 담론을 담은 책 『황홀한 글감옥』을 읽고 태백산맥 문학관을 탐방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조정래 작가는 글쓰기의 방법론을 다독4, 다상량4, 다작 2의 비율이면 좋다고 썼다. 다독은 글쓰기를 위해서도 필수다. 2017년 2월과 6월에는 빛고을 역사교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역사학자 노성태 선생의 『남도의 기억을 걷다』를 읽고 저자인 노성태 선생을 초대해 남도답사를 3회 다녀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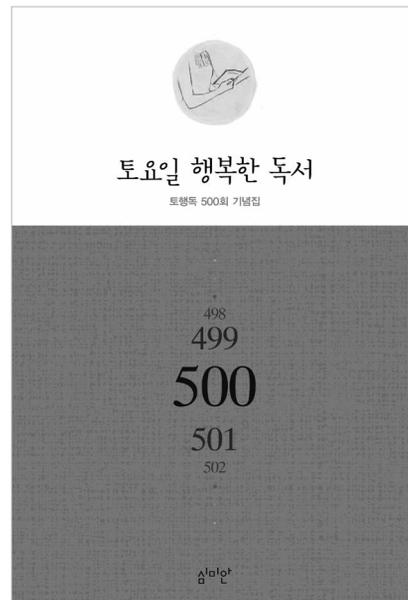
회원들은 가장 많이 감동한 책으로 『한국인 전용복』을 추천했다. 토행독은 이 책을 읽은 후 2011년 2월 말 일본 메구로가 조엔을 방문했다. 왜 토행독이 일본까지 찾아 갔을까. 이 책을 읽은 회원 대부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을 놓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전 회원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회원들의 일본 여행 의미는 일본에서 그것도 국보급 건물인 메구로가조엔 복원 공사를 한국인 전용복에게 맡긴 이유에 답이 있을 것 같다.

그의 기술과 예술성에 탄복한 일본은 끊임없이 귀화 요청을 해왔지만 조선의 옷칠을 알리겠다는 결의 하나만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켰고, 현재 그의 작품은 일본 미술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2017년 11월에는 토행독의 500회를 기념하며 회원들의 독서 발자취를 담은 기념 문집도 발간했다. 토행독이 걸어온 길과 각 자의 입문기, 함께한 이야기, 자유롭게 쓰고 생각한 산문 등을 실었다. 인류에게 가장 최적화된 정보 전달 방법인 책을 읽고 사색하고 상상하며 단순한 감동을 넘어 현장에서 저자를 만나는 활동을 하고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한 활동을 하는 토행독의 회원들이야 말로 현대의 사대부(士大夫)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경희 전임 회장은 “주 1권씩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발전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서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 송년회 때는 회원 전체의 이름으로 우수회원에게 진보상을 줌으로써 기쁨을 나누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북구 운암도서관에 등지를 틀고 11년 넘게 매주 토요일 아침 독서모임을 갖는 토행독은 독서를 통한 아름다운 구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철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등의 학문이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사람과 삶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아가는 토행독이 메마른 시대에 차가운 땅속의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니체가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인식의 두터운 벽을 넘어 독서와 공부를 통해 변화와 창조를 이루어가는 토행독의 더 높은 비상을 응원한다. ♪



열려있는 시민 문화활동 플랫폼, 청년문화허브의 시작



—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 청년들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청년문화허브(이하 허브)가 어느새 7년차가 되었다. 2013년 2월, 허브가 시작된 때를 떠올려 본다. 당시 나는 문화기획자로 활동해오며 계속 마음속에 근질거리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우리들은 ‘주인’으로 살고 있나?”

도시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한 주변 청년들의 답은 한 마디로 요약됐다.

“우리는 주인은커녕, 기껏해야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인 것 같다.”

다른 분야는 접어두고 적어도 문화계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었다. 문화도시의 주인은 행정과 일부 전문가들로 보였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문화 프로젝트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3가지로 요약되던 때였다.

첫째,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집객대상

둘째, 자원봉사자(라고 불리는 무임금 혹은 저임금 일용인력)

셋째,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인) 보조인력

이런 부분들이 영 소화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걸렸다. 청년들은 여러 문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업의 객체나 이용 대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 문화중심도시 광주 청년들의 현실이었다. 청년들은 자원봉사자나 보조인력으로 사업기간 동안만 일하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되었다. 그것이 의도되었든 아니든 광주에서 청년들은 문화 소모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기관에서 일하며 나는 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문화중심도시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화사업들로 정말 광주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이진 아니다 싶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연계하고 모여 본인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관 주도의 탑다운 방식 문화사업에서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광주에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의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2013년 2월, 청년문화허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설립취지에 맞게 단순히 하나의 청년문화단체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년문화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그간의 활동사항들을 살펴보니 별별 일을 다 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남아 있는 활동은 역시 '허브'라는 이름답게 청년문화단체들의 연대체인 상상실현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도록 간사단체로서 에너지를 쏟았던 점,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 활동, 최근엔 전국단위의 청년문화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전국의 뜻을 모으고 있는 활동들이다. 이런 활동들은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왔다. 그 덕에 2~30대 중심의 시민문화단체로서 만6년 1개월을 접지 않고 계속 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허브는 전환점에서 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은 받았지만 지속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후원회원 확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한 마디로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해 허브는 '지속성'을 화두로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아 나선다. 과연 어떤 답을 찾게 될까? 10년차가 되었을 때도 허브를 소개할 수 있을까 흥미진진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문화·관광의 연계 방안



안태기_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02년에는 월드컵과 2010년에 전라남도에서 F1코리아그랑프리가 열렸다. 또한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세 번의 실패 끝에 작년에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5번째로 ‘그랜드슬램’ 달성 국가로 등극했다. 부산에서도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World EXPO)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몇 번의 도전 끝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또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대도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개최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유·무형의 효과를 높이고, 대회 개최가 그만큼 가치를 생산하는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경제적 효과까지 발생시키니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면 선진국과는 달리 전체 예산의 일부를 국고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메가 이벤트 개최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중소도시 및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보다는 스포츠복합단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국내 도시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대규모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치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포츠이벤트 참가나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능동적·수동적 스포츠관광객은 해당 도시의 스포츠관광을 촉발시키는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스포츠 관람 이외의 관광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방문으로 이어져 도시환경 및 인프라 개선, 고용 창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관광은 지역의 경제개발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개최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이미지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며, 개최지의 자원과 산업,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그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며, 개최지역은 잠재적인 관광목적지가 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개최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산업정책 등을 연계하여 관광을 육성하는 계기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며, 개최지역은 잠재적인 관광목적지가 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개최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산업정책 등을 연계하여 관광을 육성하는 계기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연계하여 관광마케팅을 본격화한다면 전통적인 지역산업은 물론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컨벤션산업 등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문화와 관광차원에서 광주의 역사와 자원,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고 할 수 있는가? 참가 선수들의 안전과 스포츠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잘 되었다고는 하나, 과연 시민들에게는 무엇을 성공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참여 선수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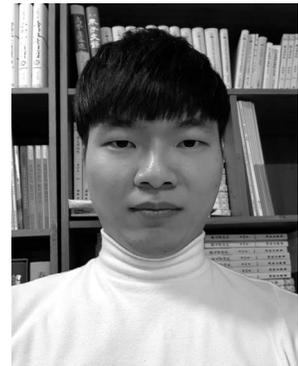
이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회 개최기간 동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개최 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투자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스포츠 인프라와 운영역량은 물론 참가선수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와 이벤트, 관광명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의식 선진화 및 국제적 역량강화로 국제행사를 통해 배타적인 지역의식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자신감,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만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남도 맛과 멋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음식코스 개발 등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이번 대회 때 잘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이미 대규모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경험한 광주광역시로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스포츠·문화·관광교류를 통해 국제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 청년들이 문학을 배운다는 것

조운윤_ 드림청년 5기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이 좋았다.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있는 게 좋았다. 침묵과 정지.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진로를 결정해야 했던 때의 생각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른들은 모두 어딘가로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바쁜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추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조용하게 사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글은 소음이 아닌 적막 속에 있을 때 잘 읽히고 또 잘 써지는 법이니까. 작가에게 필요한 건 가만히 몸을 앉힐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종지와 펜뿐이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진학한 곳이 문예창작학과였다. 거기엔 나와 마찬가지로 작가를 꿈꾸며 문학을 배우는 이른바 문청들이 모여 있었다. 물론 그들이 전부 나처럼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 작가를 지망하는 건 아니었다. 문학을 접하게 된 계기가 달랐고 성격도, 쓰는 글과 읽는 책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해 품은 애정과 열정만은 모두가 똑같았고 그 점이 줄곧 우리를 한 데 묶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강의실 안팎에 모여 서로가 쓴 글을 읽고 어울리며 서로의 가능성에 놀라고 또 부러워하기도 했다. 우리 멋대로 꿈을 꾸어도 혼나지 않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스무 살 문청의 모습에 머물러있진 않았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졸업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다. 현실과의 타협이었다. 등단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좌절하는 친구도 있었고,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또는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 펜을 놓는 친구도 있었다. 한편에선 작가를 꿈꾸는 건 이제 철없는 짓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어른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그보다 더 철든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다. 나도 그 친구들과 비슷한 고민과 불안 속에서 대학생활을 보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이십대 후반이 되었다. 전공에 문예창작학과가 적힌 내 이력서는 어디서도 반겨주지 않았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자기소개는 단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실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흥밋거리로 여겨지는 듯했다. 침묵과 정지. 펜과 종이, 책상과 의자.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들은 그들에겐 그저 무기력과 나태함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문학은 언제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학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집과 소설의 판매량 또한 떨어지고 있다면서 문학의 위기를 언급한다. 하지만 진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문학이 아닌,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청년들이다. 한 편의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시를 쓰지만 시 한 편 쓸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생활 때문에 궁극하는 한 사람이다.

거리로 눈을 돌리면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나는 그 인파 속에 섞여 길을 가다가, 문득 침묵과 정지의 상태가 되어 생각해보고는 한다.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문청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내보이길 기대하며 품고 있던 이야기들은 또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먼지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걸까.

문학은 언제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학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집과 소설의 판매량 또한 떨어지고 있다면서 문학의 위기를 언급한다. 하지만 진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문학이 아닌,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청년들이다. 한 편의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시를 쓰지만 시 한 편 쓸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생활 때문에 궁극하는 한 사람이다. 어쩌면 한국문학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애초에 그것을 시도할 새로운 작가들이 길러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를 꿈꾸는 많은 문청들이 현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문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왜 현실에 눈뜨지 못한 철부지 취급을 받는 걸까. 그들에게 마음껏 작품을 써낼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치환시키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감동케 할 시 한 구절, 소설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책상 앞에서 침묵과 정지의 상태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언제부터가 많은 청년들이 단 한 명의 정원사에 의해 손질되고 있는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한다. 청년들이 서로 다른 모습의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고 모두 획일화된 크기와 모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을 전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른들에게 비난과 동정을 받았던 나로서는 가지가 꺾이는 그 아픔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열매를 얻으려면 우선 나무를 심고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얻길 원하면서도 거추장스럽단 이유로 뿌릴 뽑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새로운 시와 소설, 새로운 영화와 음악을 향유하길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손에는 그들의 꿈을 자르는 가위가 들려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문청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닐 것이다. 지속 가능한 꿈을 꾸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것. 그리고 비난과 동정 대신 작은 격려를 건네주는 것. 문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만 변해준다면 청년들은 분명 그 변화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햇볕을 받으며 광합성을 하는 나무들처럼, 청년들에겐 주위의 격려 한 마디가 곧 글을 쓰는 양분이 될 것이다. ♪

‘사(死)의 찬미’와 김우진

김세곤_ 호남역사연구원장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나.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苦海)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천재극작가 김우진의 비극적인 사랑과 함께, 김우진의 문학 활동을 재조명한 SBS TV 드라마 <사(死)의 찬미>가 2018년 12월에 방영되었다.

김우진의 흔적을 찾아서 목포를 간다. 답사할 곳은 북교동 성당과 목포문학관이다. 북교동 성당부터 방문했다. 이곳은 김우진이 살았던 성취원이다. 성취원은 장성군수를 한 김성규가 1903년에 무안감리(목포세관장)로 임명되면서 살던 곳이다. 성당 한 쪽에는 김우진에 대한 표석이 있다.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
(1897. 9. 19. ~ 1926. 8. 4.)

이곳은 신문학 초기에 극문학과 연극을 개척 소개한 수산 김우진 선생이 청소년기(1908~1926)에 유달산 기슭을 무대삼은 희곡 「이영녀」 등을 썼던 자리임

눈에 띄는 것은 김우진의 생몰이다. 김우진은 1897년에 장성군수 김성규와 재취 순천박씨의 장남으로 장성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4세 때 모친이 별세했다.

그는 1908년에 목포시 북교동으로 이사하여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일본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거쳐 1924년 3월에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그해 6월에 귀향하여 '상성합명회사' 사장에 취임하였는데, 그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창작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1925년에 유달산 밑 사창가의 처참한 생활을 그린 희곡 「이영녀」를 집필했다.

그런데 김우진은 자유로운 삶과 문학적 포부로 인해 부친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1926년 6월에 가출하여 도쿄에서 지냈다.

한편 1926년 8월 5일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김우진과 윤심덕의 현해탄 정사'를 부산 발 긴급 전보로 실었다. 8월 5일의 <동아일보>를 읽어보자.

현해탄 격랑 중에 청년 남녀의 정사(情死)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

지난 3일 밤 1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나 부산으로 항해하던 관부연락선 덕수환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즈음에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중략) 선격명 부에는 남자는 김수산, 여자는 윤수선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본명이 아니라 남자는 김우진이고 여자는 윤심덕 (후략)

이 사건은 연일 화제였다. 8월 6일에 <동아일보>는 "이 소문이 알려지자 모아 앉으면 이야기는 모두 이 방면에 쏠렸다"는 기사를 낼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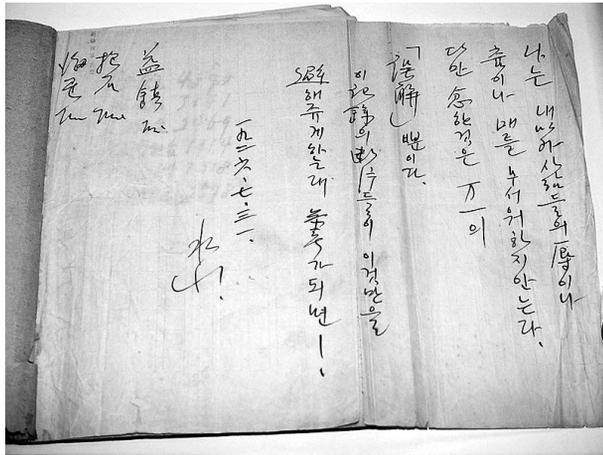
8월 7일에는 윤심덕이 오사카에서 레코드 취입을 했는데 「사의 찬미」를 불렀다는 기사가 났다. 그녀는 오사카의 닛토(日東) 레코드사에서 「매기의 추억」 등 26곡의 노래를 녹음했다. 그런데 윤심덕은 한 곡 더 부르겠다고 자청했고 「사의 찬미」를 불렀다.

곡조는 이바노비치가 지은 왈츠곡 「도나우 강의 잔물결」이었고, 악보에는 윤심덕 작사로 되어 있지만, 김우진과 윤심덕이 같이 지었으리라. 왜냐하면 윤심덕은 글재주가 형편없었다. 8월 10일 <조선일보>에는 김우진 가족의 항의 기사가 실렸다. 유서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신문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 운운하였으니, 가족들은 김우진의 시신을 찾는데 500원의 거금을 현상금으로 걸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8월 20일경에 닛토 레코드사는 「사의찬미」 음반을 발매했는데 대박을 터트렸다. 두 사람의 비련이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10만장이나 팔렸다. 이러자 레코드 회사의 음모설이 나돌았다. 윤심덕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 여동생 윤성덕에게 이탈리아로 유학 갈 것이라는 말을 했고, 김우진도 독일 유학 준비 중이었다는 점도 레코드 회사가 두 사람을 도피시켰다는 음모설을 부채질했다.

1930~31년에는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김우진의 동생 김철진은 조선총독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1931년 11월 이탈리아 주재 일본 공사관은 허위사실로 공식확인했다. (『그 때 오늘』 2010. 8. 3. <중앙일보>) 하지만 1934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는 "윤심덕씨는 생존, 옥동자를 낳았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자의 이야기가 실릴 정도로 두 사람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조선일보로 본 한국풍속 85년』, 2005. 3. 3. <조선일보>)

이어서 갓바위에 있는 목포문학관을 간다. 목포문학관에는 김우진과 박화성, 차범석, 김현 전시관이 있다. 2층에 있는 '김우진관'은 연보, 육필원고, 생애와 문학, 작품, 김우진과 목포문학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전시관에서 1926년 8월 5일자 <동아일보>·<매일신보> 기사와 '돌아오지 못하는 김우진 군의 반생(半生)' 제목의 8월 6일자 <매일신보>를 보았다. 그런데 '윤심



김우진 소장 유품

덕' 이름을 찾기가 힘들다. 「사의 찬미」 노래 이야기는 물론 없다.

한편 김우진과 윤심덕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 그들은 1921년 7월 '동우회 순회연극단'에서 처음 만났다. 1920년에 동경의 동우회와 극예술협회는 제휴하여 1921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국내 순회공연에 나섰다.

'동우회 순회연극단'은 1921년 7월 12일 부산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25개 지역을 순회하였고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뤘다. 연출은 김우진이 맡았는데, 그는 국내 순회공연비 일체를 부담했다. 공연작품은 김우진이 번역한 던세니의 「찬란한 문」 이외에 조명희의 창작극 <김영일의 사(死)> 등이었고, 연극 막간에 흥난파의 연주, 윤심

덕의 독창도 있었다.

순회공연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귀었다. 그러나 김우진은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윤심덕은 1923년 귀국 후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성황리에 첫 독창회를 열었다. 김우진은 1924년 3월에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6월에 목포로 귀향하여 '상성합명회사' 사장에 취임했다. 분주하고 고된 일속에서도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1925년 6월에 '오월회'를 결성하고 동인지를 발행하는 등 열성을 보였고 희곡 「이영녀」, 평론 「이광수 류의 문학을 매장하라」(1926년 1월)를 쓰는 등 문학 활동에 매진했다.

하지만 김우진은 부친과 갈등을 겪었다. 그는 1926년 6월 가출하여 도쿄로 건너가 친구 홍해성의 집에 기거했는데, 이곳에서 희곡 「산돼지」를 탈고했다.

한편 윤심덕은 오사카에 머무르면서 레코드 취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쿄에 머물던 김우진에게 어느 날 그녀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전보가 날아왔다. 그는 홍해성에게 '그녀를 말리러 가겠다.'고 알리고 도쿄를 떠났다.

우연히도 소장 유품에서 김우진이 1926년 7월 31일에 쓴 일기를 발견했다.

나는 내 이의 사람들의 욕이나 춤이나 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만 분(忿)한 것은 만일의 『오해(誤解)』 뿐이다.

이 기록의 단편(斷片)들이 이것만을 피해주게 하는데 참고가 되면!

7월 31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일기는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기 3일전에 쓴 것이다. 일기대로라면 김우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걱정한 듯하다.

김우진은 윤심덕과의 비련 때문에 그의 문학은 가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S 드라마 <사의 찬미>가 김우진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

[재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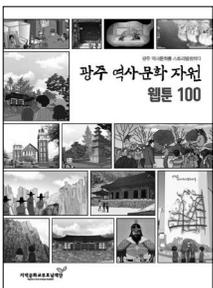
•사업

우리 재단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역사문화자원 웹툰100』 책자
기증식 가져



지난 1월 23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열린 ‘광주역사문화자원 웹툰 100 책자 기증식’에서 우리 재단 백수인 이사장과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의 연구책임 맡은 김덕진 교수, 이기훈 상임이사 등이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한 자리에서 책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백수인 이사장은 기증식에 앞서 “광주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웹툰 100 책자 발간을 통해 학생들이 광주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의 역사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웹툰으로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재단은 총 650부를 교육청에 기증하고,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했으며, 수업안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연구 결과로 웹툰과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우리 재단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서 뽑은 100개의 이야기들을 모아 『광주역사문화자원 웹툰100』 책자를 출간했다. 광주지역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역사교육, 관광, 문화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100개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하였으며, 인터넷누리집을 통

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우리 재단은 또한 광주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광주역사문화자원과 스토리텔링』 책자도 함께 발간했다.



•연대

2019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



2019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화) 광주장애인문화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내드름, 지역문화교류재단, 얼수, 광주장애인문화협회는 대표단체, 광주장애인미술협회와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는 감사단체, 간사단체는 우리 재단이 선정되었다. 또한 2019년 주요 사업으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현안 및 이슈별 연대사업 참여,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개최, 협의회 회원단체 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주시&시민문화예술단체 문화난장 토크 포럼 열려

광주문화정책연대가 주최하고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주관한 ‘광주시&시민문화예술단체 문화난장 토크’가 12월 20일(목) 5·18 기록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광주문화정책연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안한 10대 문화정책의 민선 7기 문화정책 및 사업의 반영 여부와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는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10대 문화정책의 사업 반영 여부, 조성사업과 전당 활성화를 위한 광주 역할

재단소식



및 시민사회 제안, 민관 소통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다.

•조직

2019년 제1차 후원이사회 열려



2019년 제1차 후원이사회가 오형근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후원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26일(화) 우리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 사업 및 조직사업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재단 임원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단 임원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나들이를 오는 4월 여수 일원에서 개최하고, 월 1회 테마가 있는 문화나들이와 연 1회로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후원이사회는 회원 및 조직 사업 외에도 후원이사들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화적 현안을 제안하여 함께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 열려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안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20일(수) 우리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역의 문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우선은 우리 재단이 간사(공동)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문도협, 민예총, 시민연대 등이 개최하는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단담회'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2019년 제1차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열려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5일(월),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보고 안건으로 2018년 사업 및 결산, 감사결과보고, 논의 안건으로 임원 승인, 2019년 사업 및 예산 건을 다루었다. 2019년 사업 및 예산은 각 의결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오랫동안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애쓴 김민정 전 팀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조촐한 행사도 함께 열렸으며, 이후 옮긴 뒤물이 에션 재단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키로 하였다.

[회원소식]

김옥렬 운영위원(광주전남민연련 상임대표), 첫 사진전 ‘아시아의 미소’

미얀마, 네팔 등지를 다녀온 그는 ‘아시아의 미소’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절로 웃음을 번지게 만드는 사진들을 선보인다. 김옥렬은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첫 전시를 연다는 생각에 무엇을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한국도 아시아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에 이번에 아시아의 미소를 선보이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옥렬은 전시회와 함께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 미얀마’라는 첫 사진집도 출간했다. 200페이지 분량의 사진집에는 미얀마 사람들과 삶의 일상, 풍경 등이 담겼다.

- <프레시안> 발췌

박신영 부운영위원장(소설가), 『서석문학』 봄호 3·1절 100주년 특집 풍성

아시아 『서석문학』 2019년 봄호(통권 49호)가 새로운 표지 디자인과 풍성한 기획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호에 신설된 ‘작가와 작품’ 코너에는 박신영 소설가를 초대했다. 1992년 <농민신문> 소설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한 박 작가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편소설 「막차」를 수록해 작가의 작품을 음미하도록 했다. 「막차」는 운행중 첩첩산중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차안에서 승객들끼리 벌이는 인생담론을 다룬 작품이다. 간결하고 압축된 문장과 더불어 등장인물의 심리묘사가 돋보인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이남 회원(미디어아트 작가), 광주폴리Ⅳ 공모 ‘무등의 빛’ 선정



광주폴리Ⅳ(관문형 폴리) 기본 및 실시설계 작품 현상공모 당선

작에 ‘무등의 빛’이 선정됐다. 관문형 폴리는 광주 구도심 곳곳에 소형 건축물을 설치했던 지난 광주폴리를 광주 진입로인 광주톨게이트로 확장한 것이다. 당선작 ‘무등의 빛’은 의향, 예향, 미향의 ‘삼향’을 지닌 광주다움을 비롯해 광주의 멋과 맛이 빛을 통해 세계 공동체에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무등의 빛’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빛의 도시로서 ‘광주다움’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무등산으로 형상화해 미학적으로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광주일보>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트 작가), 수백개 빛으로 빛어낸 신수, 새해 福 전해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홍콩 코즈웨이베이 타임스스퀘어 빌딩 내 광장에서 ‘새해 인사’를 주제로 미디어 영상을 전시했다. 진시영 작가는 LED 특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인체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빛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상서로운 기’를 형상화하고자 했다”며 “다채로운 빛을 매개로 신수들의 길한 기운이 관람객에게 전해져 복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 <전남매일> 발췌

김덕진 부이사장(광주대 교수), 수두룩한 친일잔재 흔적... ‘살아 있는 역사교육으로’ 활용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광주 친일잔재 조사 태스크포스 팀’은 광주의 친일잔재를 놓고 ‘폐기’와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한 결과, 무조건 철거가 아닌 잔재를 통한 반면교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 교수 팀은 “근대 초 광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광주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이 사업가와 자본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닌 노동에 직접 참여한 광주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일제 치하 노동력 착취의 증거물인 병커들을 통해 일제 지배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남일보> 발췌

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

안태기 운영위원장(광주대 교수),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국제 학술 논문상 부문



지난 2월 22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9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 '축제학술 논문상 부문'에서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안태기 교수가 그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안태기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의 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의 발전과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에 더욱 특색있는 콘텐츠개발에도 일조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발췌

노성태 이사(광주국제고 수석교사),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광주서 3·1운동 100주년 학술세미나, 판결문 분석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2월 20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노성태 광주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와 임선화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학 고려대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노성태 수석교사는 세미나에서 광주 3·1운동 주역 103명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 수석교사는 "회고 등에 의지하다 보니 이름이나 날짜, 형량, 최초 시위지, 시위 방향 등이 판결문과 차이가 있었다"며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 등 광주 3·1운동사에 대한 재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광주기톨릭평화방송> 발췌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양균 운영위원 모친상
- 백수인 이사장 모친상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류영국 이사(지오시티 대표), 조선대 대외협력외래교수 임명
- 허달용 회원(화가), 남도수목화협회 부회장 선임
- 김옥렬 운영위원,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선출
- 김성 이사(광주대 초빙교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출
- 지형원 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선임
- 정광민 부이사장(건축사무소 서로 대표), 제25회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수상
- 남성숙 이사(광주매일신문 대표), 광주문인협회 감사패 수상
- 김대현 이사(전남대 교수), 『사군자 한시선』 출간
- 천의영 회원(경기대 교수), 『열린 공간이 세상을 바꾼다-포용 공간 혁명』 출간
- 김덕진 이사(광주교육대 교수), 『전라도의 탄생-생활의 터전』 출간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구용기(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 양봉모(BBS 선임기자)
- 이모숙(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이상필(동신대 교수)
- 전운천(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노동조합위원장)
- 조계현(윤상원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 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양혜령 치과의사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헌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운영위원〉

강성욱 전 광주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열쑤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함께하는 사람들·편집후기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오경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명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문화체육실장

김병균 강도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HOI 대표이사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주현진 시인, 전 호남전기 부장

천형욱 변호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다큐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연구실장

이지은 총무간사

박창하 청년인턴

조운윤 드림청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김여정 총무간사

편집후기

다투어 피는 꽃들의 숲에서 어느 시인의 쇠구처럼 사람이 있다고 느끼며 잠시 놀라는 건 분명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오래 걸어둔 빗장을 열고 당신과 나, 우리에게 '광주다움'이 무엇인가 물었다. 특집기획. 때마침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아직 반쯤은 보이지 않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은 어디까지 왔을까'를 문화진단으로 들어 보았다. 분명 누군가가 왔기 때문이다.
오월, 광주독립영화관, 청년문화허브... 우리가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 마침내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왔다.
그를 위해 나도 '이 저녁을 떠나 밥을 차리고' 싶다. '창'과 함께 해주신 분들과 저녁상을 마주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